

 국토교통부		보 도 자 료		
		배포일시	2020. 5. 6.(수) 총 4매(본문 4)	
담당 부서	첨단도로안전과	담 당 자	• 과장 강성습, 사무관 나귀용, 주무관 장종익 • ☎ (044) 201-3922, 3923	
	도로정책과	담 당 자	• 과장 이상현, 사무관 신우철, 주무관 이명신 • ☎ (044) 201-3874, 3883	
	간선도로과	담 당 자	• 과장 이정기, 사무관 김강문, 주무관 노영수 • ☎ (044) 201-3907, 3893	
	도로운영과	담 당 자	• 과장 오수영, 사무관 남궁부, 주무관 유현기 • ☎ (044) 201-3915, 3910	
보 도 일 시		2020년 5월 7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*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5. 6.(수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도로교통 위험요소에 대한 선제적 관리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.

- 「2020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대책」(4월) 후속 도로교통 안전대책 시행
- 교량 안전관리에 로봇 활용... 정확도·안전도 향상 기대
- 1톤 이상 작업차량에도 TMA 적용... 도로 작업자 안전 강화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도로교통 위험요소로부터 안전한 도로환경을 구축함으로써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도로 인프라 중심의 「도로교통 안전강화 특별대책(’20~’23)」(이하 “특별대책”)을 추진하기로 하였다.

- 이번 대책은 지난 4월 9일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「2020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대책(이하 “종합대책”)」 中 인프라 부분의 세부 실천계획(5개 분야 64개 세부과제)으로, 인프라 개선·확충 물량 및 추진방안 등을 구체화하였다.
- 또한, 로봇 등 첨단기기를 활용한 구조물 점검, 안개·바람 대비 선제적 대응 및 도로 작업자 안전 강화 등의 내용을 추가하여 인프라 관점에서 한 층 더 탄탄한 대책을 마련하였다.

□ 이번에 마련한 특별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□ 교량·터널 등 구조물 안전관리 강화

- 일반 교량에 비해 면밀한 관리가 필요한 **케이블 교량***(사장교, 현수교)의 관리강화를 위해 원격제어가 가능한 **로봇을 활용**해 케이블 외관 상태를 점검(‘20~)하고, 향후에는 외관 뿐만 아니라 내부 부식상태 등도 동시에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등을 위한 시범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.

* 교량 하부로 대형선박이 통과할 수 있도록 교량 상판을 케이블로 지지하는 교량

- 기존 점검은 작업자의 육안 검사로 진행되어 **정확도가 미흡**하고, 고소작업으로 **안전이 우려**되었으나, **로봇의 본격 활용**으로 정확도와 안전을 모두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.
- 또한, **케이블 교량의 거동, 이상징후를 실시간으로 정확히 파악**하기 위해 교량에 부착된 **노후 계측센서(가속도계, 변형률계 등)를 보수**하고, 제2진도대교 등 **10년 이상된 교량은 신규 센서로 전면 교체(‘20~’22)한다.**
- 밀폐된 구조물 특성상 대형사고가 발생이 우려되는 터널의 경우, 일제히 관리등급을 재산정하여 방재시설을 보강(‘20~’23)하고,
 - 대피시설이 미흡한 터널(3등급 중 약 114개소)부터 **제연설비, 차량 진입 차단설비** 등을 우선 보강한다.



▲ 케이블 점검 로봇



▲ 터널 내 제연설비



▲ 터널 외 차량진입 차단설비

- 낙석·산사태 예방을 위해 **절토 사면(비탈면)에 음향센서, 광섬유 센서** 등을 설치하여 **위험징후를 자동 감지**하기 위한 ‘**스마트 계측 시스템**’ 시범사업을 추진(‘20, 10개소)하고, 향후 정확도 검증 등을 거쳐 위험도가 높은 사면 위주로 확대할 예정이다.

□ 안개 등 재해 대비 선제적 대응

- 안개로 인한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정거리, 사고정보 등을 토대로 안개잡은 구간을 전면 재조사*(현재: 106구간)하고, 시정계 및 안개등과 같은 안전시설을 보강·확충('20~'21)한다.

* (기준 예시) 시정거리 250m 이하의 안개가 연 30일 이상 발생하거나 또는 안개로 인해 10중 추돌이상의 대형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

- 안개 발생시, 위기경보 단계별로 안전속도를 규정*(안개 대응 매뉴얼에 반영)하고, 도로전광표지(VMS) 및 가변형 속도제한표지 등을 활용해 안전속도를 운전자에게 안내('20.11~)할 계획이다.

* (예시) 주의(시정거리 250m ↓ : 20% 감속), 경계(100m ↓ : 30%), 심각(50m ↓ : 50%)

- 또한, 바람에 취약한 케이블 교량의 진동 문제(사례: 천사대교)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설계기준 개정 등의 방안도 강구('21)한다.

□ 도로 작업자 안전 강화

- 현재 10톤 이상의 작업차량에만 부착되는 트럭탈부착형 충격흡수시설(TMA)을 소규모 차량(1~2.5톤)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하고, 고속도로에는 고성능* TMA 제품(12대)을 운영('20.10~)할 계획이다.

* TMA에 충돌하는 시험차량 속도를 100km/h로 성능시험 진행(現: 60 또는 80)

- 또한, 제한속도별 안전표지 설치방법, 신호수 가이드라인(위치, 수신호 방법) 등이 포함된 안전매뉴얼을 현장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포켓북 형태로 제작·배포('20.6~)하고,

- 작업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도로관리기관은 도로정비심사시 감점 등으로 페널티를 부과하여, 도로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작업자 대상 철저한 사전교육과 긴급안전점검 등을 실시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.

□ 도로관리기관의 교통사고 분석 강화

- 도로관리기관의 사고원인 조사 대상을 현재 시행중인 빈도기준 (최근 3년간 사망사고 3건 등)에서 다중추돌에 의한 사망사고 등 중대 사고로 확대(’20,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)하여 인프라는 물론, 제도상 미비점도 적극 개선한다.
- 아울러, 교통사고의 획기적 감소를 위해 도로안전을 전담하는 조직체계를 구축하는 등 도로안전 시스템의 전면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.

□ 국토교통부 김용석 도로국장은 “도로교통 안전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특별대책의 세부 분야별로 신속하고 면밀히 후속조치를 추진하겠다”면서,

- “교통안전 선진국 수준의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”고 밝혔다.

붙임: 도로교통 안전강화 특별대책

 공공누리 공표대상물 사용이유 면제	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첨단도로 안전과 나귀용 사무관(☎ 044-201-3922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--	---